

복합재난 대응 능력 강화하는 한국가스공사

한국가스공사(사장 채희봉)는 지난 10월 24일 인천 LNG 기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진 등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'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'을 했다.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전국 70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종합훈련이다.

이번 훈련은 동절기 이상 한파나 규모 7.0의 강진에 의한 인천 LNG 기지 가스시설의 파손, 가스 누출과 화재사고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.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협업 체계 즉시 가동, 국민 참여 지진 대피 훈련, 초동대응과 신속한 긴급 복구 등 총력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에 초점을 뒀다.

특히 채희봉 사장이 직접 훈련 전 과정에 참여해 위기 대응 통합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연수구청·송도소방서·연수경찰서 등 지역 11개 관계기관과 현장 훈련을 시행했다.

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기지 가스 송출 중단 시나리오에 맞춰 천연가스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. 또 인천 LNG 기지 가스과학관 관람객이 참여하는 대피 훈련 과정을 지역 대학생 등 시민체험단이 참관하도록 했다.

채희봉 사장은 "인천 LNG 기지는 국가 중요 에너지 시설인 만큼,



태풍·지진·드론 공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주요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에 전력을 기울여달라"고 당부했다.

가스공사는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 이번 훈련 기간 전사 위기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 사업소에서 총 11회 자체훈련을 시행했다. 각 사업소는 ▲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적정성 점검과 개선, 보완 ▲ 현장 사업소장 훈련 직접 지휘 ▲ 자체 보유 방재설비 가동훈련 ▲ 지역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확립 등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능력 향상에 주력했다. ⑦

